

84. 세계 각국 디자인의 과거와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제적 행사가 5일 광주에서 개막돼 3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빛 LIGHT'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디자이너들의 실험 정신을 담은 2천7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무엇일까요?

- ①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 ② 전주세계소리축제
- ③ 부산국제영화제
- ④ 대구 애니캐릭터 축제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남성의학 전문의 조철희의 **술직, 대담한 성**

첫날밤, 너무 서둘지 마세요

경제수준이 급성장하고 생활양식이 급변하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표면은 경제적 고난, 아이 교육, 불륜 등으로 포장하지만 거의 모두 성적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성에 대한 과도한 환상도 문제가 된다. 요즘 인터넷을 통하여 스와핑 까지 추산하고, 미성년자 성매매, 선정성 포르노물, 성인용품 등 성문제에 대한 것이 활개를 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이러한 사이트에서 얻은 그릇된 성 지식으로 인해 파멸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국제결혼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성적인 트리플로 진찰실을 찾는 사람도 있다. 결혼 전에 약혼한 사이인데 약혼남이 발기 장애가 있는 것 같다고 정확한 진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신혼여행에서 갖 돌아온 신랑이 신부 측의 요구에 의해 진찰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남자가 발기불능이면 이혼은 당

연하고 손해배상소송까지 하겠다고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강제로 병원에 오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실제로 신체적 이상이 있거나 발기불능인 경우는 거의 없다. 신부는 친구나 잡지 인터넷 등에서 얻은 어설픈 성 지식으로 신랑을 성불구자로 단정하고 신혼여행지에서 부모에게 전화해 진료를 예약하는 하는 경우가 있다. 남성의 성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도 딸을 이해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합류하여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필자가 경험한 환자는 30세의 회사원으로 포르노 사이트를 볼 때 발기는 잘되었으며 자위행위 경험도 있었지만 실제적 성경험이 전혀 없었다. 여성도 상당한 인텔리의 직장 여성 이었는데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만났다고 한다. 신혼여행

첫날에는 긴장해 그냥 보냈고, 둘째 날은 신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실패. 셋째 날은 서로가 냉담한 태도로 보내고 돌아왔고, 그 길로 헤어졌다. 신부의 얘기는 둘째 날 신랑의 성기를 살짝 만져보아도 전혀 발기반응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결국 발기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결과 남자는 정상발기가 됐으며 신체적인 아무런 이상소견이 없었다. 신부 측은 일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은 합의하에 이혼하였으며 신랑 측에 경제적 손해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신혼초의 성 트러블은 흔히 있는 일로, 숙총과과 숙처녀가 결혼하였을 때 약 절반 정도가 초야의 결합에 실패했다는 보고도 있다. 그 요인으로는 ▲남성이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당황해서 심리적 요인으로 실패하는 경우 ▲남성이 삽입 전에 사정해 버리는 극단적인 조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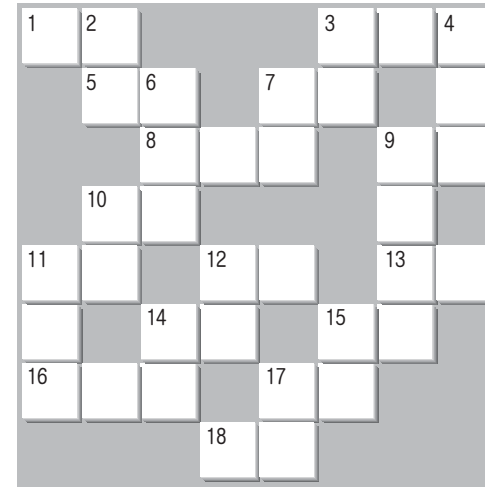
증 ▲여성의 질구가 좁아서 남성을 잘 수용하지 못하거나 아예 질이 없거나 질이 있어서 질구가 닫혀 있는 경우 ▲남성의 테크닉 부족으로 여성으로부터의 윤활성 분비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 ▲여성성기의 해부학적 구조를 남성이 잘 몰라 우물쭈물하는 동안 발기되었던 음경이 이완되거나 사정해 버리는 경우 ▲질 경련이 심하여 결합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디지털 현대 여성은 설령 처녀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충분한 성지식을 갖고 있으며 첫날밤의 결합에 불안감과 기대감은 갖게 되는데 만일 첫날밤을 실패하게 되면 남자를 깔보고 발기 장애로 의심하고 남자는 더욱더 초조해 저서 심인성 발기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심리적 발기 장애는 실제로 성관계를 성공하게 되면 바로 좋아지고 원상태로 회복되기 때문에 남성을 위로해 주고 서로 애정을 표시하면서 성관계에 임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발기 되지 않거나 삽입 불능이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하고 검사와 치료를 하면 된다. <젠물만비교기와 원장>

함께 풀어봅시다 <271>

→ 가로풀이

1. 일정한 계약에 의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돈을 맡기는 일. 3. 보통 학교 등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강이나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든 큰 장소. 5.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 또는 남을 저주하는 말. 7. 어떤 의견, 주장, 논설 등에 반대하여 말할. 8.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대어 말을 함. 9. 전투에 필요한 장비나 사상을 단단히 갖추는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0. 우리나라 고유의 제조법으로 만든 종이. 다나무 껍질 등의 섬유를 원료로 한다. 11. 둘 이상의 출판물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병렬문. 12.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순위 남자 형제를 여동생이 이르는 말. 13. 잡자리에 들어 잠을 잡. 14. 진도 5 이상의 강한 지진. 15. 정식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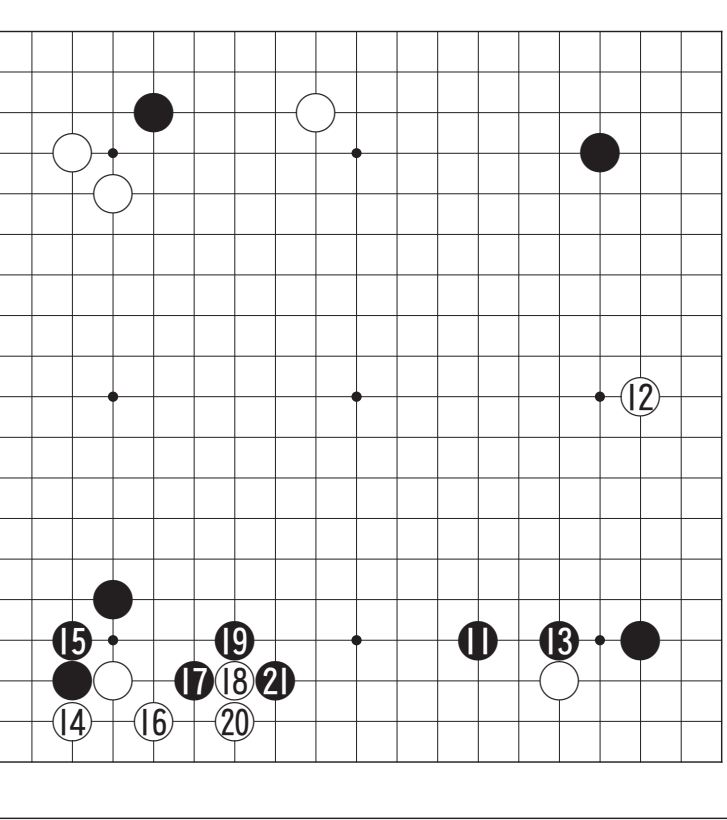
로 절차를 갖추지 아니하고 간추린 의식이나 양식. 16. 서로 같이 아니하고 다른 점. 17. 자기 회사에서 만들 수 없는 제품이나 부품 등을 다른 회사에 맡겨 만들게 함. 18. 모집단(母集團)에서 표본을 뽑아내는 일. 또는 액체의 혼합물에 용매(溶媒)를 가해 혼합물 속의 어떤 물질을 용매에 녹여 뽑아내는 일. ↓ 세로풀이 2. 육구나 욕망을 억제하고 금함. 3. 큰 이득이나 성공, 행운 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우단을 깎 대(臺) 위에서 상아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몇 개의 공을 긴 막대기 끝으로 쳐서 승부를 가리는 실내 오락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곳. 6. 먹고 난 뒤의 그릇을 씻어 정리하는 일. 7. 손아랫사람에게 하듯 낮추어 하는 말. 9. 값을 치를 돈도 없이 남이



▶ 지남주 정답자 송영호·광주시 서구 풍암동 차우영·광주시 남구 진월동

▶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 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계속되는 강수 2보(11~21)

최강부 준결승 1국

白 김희관 5단 黑 선계성 6단

기. 백의 입장에서 이렇게 관이 잘게 나뉘어야 덩이 말을 하게 된다. 백 16은 구형정석으로 '참고도1'의 백 1로 발빠르게 버리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흑 17이 의외의 금공이었다. 이 수로는 먼저 좌변을 버려두고 관망하는 것이 보통이나 김희관 5단이 관을 잘게 나뉘게자 선계성 6단이 이같은 흐름에 제동을 걸어난 것이다. 흑 21이 또 초강수였다. 이 수로는 '참고도2'의 1로 늘고 3으로 좌변을 버려가는 것이 무난하나 계속해서 김희관 5단을 몰아붙이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이세돌, 국수전선 선취점

이세돌 9단이 지난 5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51기 국수전 도전자결정전 3번기에서 최기훈 초단을 180수 끝에 백 불계로 눌렀다. 이 9단은 이날 신예 최기훈 초단을 맞아 특유의 전투력을 과시, 기선을 제압함으로써 나머지 대국에서 1승을 챙길 경우 도전자권을 따낼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조훈현, 박정상 9단과 이희성 7단을 꺾고 도전자 결정전에 진출한 최기훈 초단은 초반 실착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이 9단은 오는 18일 열리는 도전자전에서 승리할 경우 윤준상 6단과 국수위를 놓고 5번기를 갖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8일(음 8월 28일 乙亥)

36년생 암종도색을 하나 잡지는 않다. 48년생 많은 갈등이 따르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60년생 재물과 처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 72년생 불만과 불평이 나타나나 본인의 잘못이다. 84년생 서투로 인해 불평이 있다. 행운의 숫자: 16, 17

37년생 순위에 항해하는 격이다. 49년생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나 신중하게 결정하라. 61년생 의외의 이성을 만날 수도 있다. 73년생 기력이 쇠하니 폐장을 살펴봐라. 85년생 식구들과 떨어져 지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01, 43

38년생 또 다른 성공의 기쁨이 마련된다. 50년생 불연이던 극한상황도 예상 못하니 부부간 연정을 삼가라. 62년생 급전 사기 대소비가 있을 수도 있고 직업 변경도 우려된다. 74년생 승공과 역풍이 같이한다. 행운의 숫자: 02, 31

39년생 어부지리는 있으나 결과는 조그맣다. 51년생 절대 손익 사람과 신사업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자세히 살펴라. 63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 75년생 일승일패는 병가지상사다 성심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23, 42

40년생 일고는 있으나 좋은 날은 멀지 않다. 52년생 뜻밖의 기회가 오니 적극적인 참여로 기회를 잃지 마라. 64년생 남의 말을 경청하라. 76년생 자신 있게 추진하면 큰 성과가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11, 41

41년생 처음 가는 길이나 살피서 행동해야 한다. 53년생 승공에 항해하나 역풍에 대비는 해야 하리라. 65년생 처가나 시가 편에 예상과 생길 수 있다. 77년생 승공과 역풍이 같이한다. 행운의 숫자: 20, 38

42년생 다시한번 도전의 기회가 보인다. 54년생 새로운 직업과 인연이 생기기 조심은 잃지 마라. 66년생 세 번 생각하고 행동하면 오행은 없으리라. 78년생 새로운 인연은 있으나 큰 기대는 거두어라. 행운의 숫자: 12, 30

43년생 재물의 손실 사기 실물을 조심하라. 55년생 정신이 흠미하니 심상의 안정을 취하라. 67년생 주변이 산만하고 어지럽다. 79년생 의외로 재물이 생기고 영연하는 격이나 이성관계는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22, 34

44년생 일손을 놓고 가족을 살펴봐라. 56년생 모든 일이 순조로워나 아내의 건강을 살펴봐라. 68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으나 내 것이 아니다. 80년생 자기 일을 조심하라. 불어놓은 신뢰가 무너질까 걱정이다. 행운의 숫자: 21, 32

45년생 신체의 불만이 발생할 수도 있다. 57년생 주변의 이성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69년생 특별히 건강에 유념해야 뒤달이 없으리라. 81년생 일 거수 일 부족을 조심하고 마음까지도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18, 35

46년생 생활의 무리함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변화를 가져라. 58년생 혼자하면 재미가 없으니 주변과 어울려라. 70년생 하는 일마다 불리한 인연이 따를 수가 있다. 82년생 뜻밖의 협조가 있느냐 결과는 기대 마라. 행운의 숫자: 14, 28

47년생 의심스런 인연을 만나니 생각하며 행하라. 59년생 지인의 협조가 있다. 71년생 불연이던 친지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니 이해하며 지내라. 83년생 부부의 애정이 소홀소홀 살아난다. 행운의 숫자: 24, 44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우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p>굿모닝 잉글리쉬 <1006></p> <p>What's your favorite sport? 당신이 좋아하는 운동은 무엇입니까?</p> <p>A: What's your favorite sport? B: Baseball. How about you? A: I Like soccer. B: Why? A: It's an international sport. B: I agree. A: Why do you like baseball? B: Baseball is a timeless, classic sport.</p> <p>A: 당신이 좋아하는 운동은 무엇입니까? B: 야구입니다. 당신은요? A: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B: 왜죠? A: 국제적인 운동이니까요. B: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A: 야구를 왜 좋아하시나요? B: 야구는 시간 제한이 없고 역사가 있는 운동이거든요.</p> <p>* I disagree.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p> <p><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p>	<p>오하오우 니혼고 <1006></p> <p>何(なに)新聞(しんぶん)に載(の)ってたんですか。 어떤 신문에 실려있습니까?</p> <p>A: まだ飛行機(ひこうき)事故(じこ)ですって。 B: えっ。またですか。その記事(きじ)は、何(なに)新聞(しんぶん)に載(の)ってたんですか。 A: 朝日新聞(あさひしんぶん)です。何(なん)だか不安(ふあん)で、飛行機(ひこうき)乗(の)りたくないですね。 B: ええ、怖(こわ)いですね。でも何(なん)でこう立(た)って続(つづ)けに起(おこ)るんでしょね。</p> <p>A: 또 비행기 사고라는군요. B: 네, 또요? 그 기사는 어떤 신문에 실려 있습니까? A: 아사히 신문입니다. 웬지 불안해서 비행기를 타고 싶지 않아요. B: 네, 무섭군요. 하지만 왜 이렇게 연달아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일까요?</p> <p>事故(じこ): 사고 記事(きじ): 기사 載(の)る: 실리다 不安(ふあん): 불안</p> <p><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p>	<p>니하오 쑹구위 <196></p> <p>谁是收货人 누가 수취인이냐요?</p> <p>A: 样品收到了吗? Yàngpǐ shōu dào le ma? 양 '핀 시우 파오 리 마? B: 谁是收货人? 发的什么货? Shuí shì shōuhuòrén? fā de shénme huò? 쉐다 스 시우 후워 런? 파 더 섀머 후워? A: 收货人是王平, 发的是化妆品。 Shōuhuòrén shì Wángpíng, fā de shì huàzhuāngpǐn. 셔우 후워 런 스 왕 평, 파 더 스 후아 쑹장 핏 핀. B: 噢, 收到了, 放心吧。 ō, shōudào le, fāng xīn ba. 오, 셔우파오 리, 방 신 배.</p> <p>A: 제품품 받았나요? B: 누가 수취인이냐요? 보낸 것이 어떤 물건인가요? A: 수취인은 왕평입니다. 보낸 것은 화장품이에요. B: 오, 받았어요, 걱정 마세요.</p> <p>收货人 [shōuhuòrén] 수취인</p> <p><호남대학교 공자어카데미> ☎ 383-8867-8</p>	<p>한자 이야기 <623></p> <p>一瀉千里(일사천리) 한 일, 쏟을 사, 일천 천, 거리 리</p> <p>일사천리(一瀉千里)는 한 번 쏟아지면 천리를 간다는 말로 양자강이 쏟아져 흐르며 거침없이 천리를 내달는 모습에서 나온 말이다. 따라서 일의 진행이 거침없고 신속함을 비유하거나, 문장이나 글을 막힘없이 명쾌하게 써 내려감을 비유한다. 남송(南宋)의 학자 진광(陳亮)은 '역신유안전찬(興幸幼安殿撰)'에서 장강(長江)의 모습을 표현하여, "장강은 대하(大河)이므로 일사천리(一瀉千里)로 흐른다는 것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일사천리는 장강(長江)의 흐를처럼 어떤 일을 매우 빠르게 처리함을 의미한다. 이번 제2차 정상회담(頂上會談)에서 남북의 정상들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宣言文)'의 서명(署名)을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진행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 겨레의 숙원(宿願)을 앞당기는 새로운 힘과 신뢰(信賴)의 기반(基盤)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p> <p><한여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p>
--	--	--	---